

노조 “반대 투쟁”... 지역민들 광주상의 책임론 성토

광주은행 JB금융 품으로... 지역회원 무산 후폭풍

세금문제 해결 안될때 매각 불발 가능성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북의 JB(전북은행)금융이 결정됐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착잡하다는 반응과 함께 광주상공회의소의 책임론을 성토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은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자본 인수의 중심에서 광주전남상공연인합을 결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다지만 본입찰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광주은행이 JB금융으로 넘어가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JB금융이 광주은행보다 규모가 작은 것과 관련해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다소 감정적인 대응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31일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이 인수에 동의할 때 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수의 전제조건인 법인세 면제 가 정치권의 벽에 막히면서 광주은행 매각 자체가 불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광주·경남은행을 떼어내면서 광주·경남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분할

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을 때는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완화해 광주·경남은행 분할 매각을 적격분할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57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금융 소유주들 역시 분할 과정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역 회원에 노력했던 광주은행 노동조합도 지난 31일 'JB금융지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광주전남시도민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JB금융지주가 지난 26일 입찰자 프리젠테이션에서 광주은행 인수 때 투쟁을 제지하지, 고용승계, 지역사회네트워크 유지 등을 제시했으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회원의 명분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역민과 직원들의 분리매각 민영화에 대한 실망만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광주은행 지원환원 과정에 대해 광주상공회의소와 박흥석 회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광주상의와 박흥석 회장에 대한 지역민의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지난 30일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은행 인수와 관련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2010년부터 지역회원을 전제로 광주은행 인수전을 주도했던 광주상의가 인수에 실패하자 뒤늦게 책임을 나누자고 나선 것이다. 광주은행 지역회원의 진정성을 의심해 할 정도의 전락부제로 인해 본입찰 참가조차 하지 못했던 무책임에 대한 마지막 책무조차 없는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박 회장의 발언은 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 경남도 등 지자체

가 강력저지하고 나선 것처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지역회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광주은행 인수전을 주도해 온 광주상의가 규계파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회사에 휘둘리며 본입찰 참가조차 못하더니 이제는 지자체와 정치권에 공을 떠 넘기며 책임을 나누자고 나선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 보다 경제규모도 작고 광주은행 보다 적은 전북은행이 인수자가 됐다는 데 광주

전남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며 "도대체 그동안 광주상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더니 이제 슬며시 발을 빼며 정치권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광주상의가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맞나 의심이 든다"며 "광주은행 매각에 대한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광주상의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31일 광주은행 매각우선협상대상자 JB금융지주가 선정됐지만 오는 7월 인수를 확정 지을때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일 하늘에서 바라본 광주은행 본점 사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근로자 5명중 1명 “週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원하는 것보다 장시간 근로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9%가 원하는 근로시간보다 긴 시간 근로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의 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53.6 시간이었으며, 희망 근로 시간은 42시간으로 11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과잉 근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직, 서비스·판매직에서 높았다.

적정 시간 일한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이 그룹은 주당 평균 44.5시간 근무했다.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으며, 이들은 실제 주당 35.3시간 근무했다. 이 그룹에서 원하는 근로 시간은 평균 42.7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7.4시간 차이를 보였다.

50시간 이상 '과잉 근로'를 하는 근로자 중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그쳤다. 또 70.4%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과잉 근로'의 원인으로 '일자리 특성상 정규근로 시간이 길다'가 49.2%로 가장 높았고, 일을 마치려면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18.0%), 원하는 소득 때문(14.0%), 조직문화(9.1%)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을 신규 아파트 크게 늘어

공급물량 각각 1만 가구 넘어...전세난 해소될 듯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아파트 입주가가 각각 1만 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시장이 안정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 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는 30개 단지 1만1937가구로 집계됐다. 광주시에 12개 단지 4146가구가 들어서 가장 많고, 남구 10개 단지 3817가구, 북구 6개 단지 3691가구, 서구 1개 단지 188가구, 동구 1개 단지 95가구 순이다. 1~3월 광산구 첨단2지구 호반베

르디움A4·A8블록 1368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6월엔 북구 신영동 한양수자인리뷰 125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남구 주월동 호반힐하임과 중흥S클래스 리버티 등 6400여가구도 집들이를 하게 된다.

전남지역엔 올해 1만3002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2만4862가구), 부산(1만9734가구), 세종(1만4681가구)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규모다. 이달 순천시 해룡면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3차 1296가구를 시작으로, 2월엔 여수시 소라면에 여수죽림사당으로 부영 1340가구, 5월엔 순천시 해룡면 중흥 S-클래스 4차(민간대) 1606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목포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전셋값 대란'을 빚었던 지역이었지만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도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가 시작되면 매매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매물 증가에 따라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새해 첫 입국승객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도착장에서 아시아나항공 공안병석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장(우측 세번째)이 갑오년 새해 첫 아시아나항공 입국승객인 김현준씨(우측 네번째) 및 아시아나항공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저소득층 임대료 최대 月 34만원까지 지원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거급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지급됐지만 대상이 적고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됐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73만→97만가구)하고 지원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의 거주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액을 따져 차등화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지

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낮춰졌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인 가구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종전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대료를, 자가가구엔 주택 보수비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대료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도시, 농촌 등),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삼아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건설업 임금 하루 평균 15만664원

대한건설협회는 1일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건설업 전체 117개 직종의 일일 평균 임금이 전 분기에 비해 1.54% 오른 15만664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직종 가운데 9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은 전 분기보다 1.24% 오른 14만2586원이었으며 광전자 직종은 1.24% 상승한 21만3천71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문화재 직종은 2.69% 오른 17만6705

원, 원자력 직종은 3.96% 상승한 20만6068원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력난에 대비해 원전 설비의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와 문화재 분야 숙련 기능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관련 직종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공사현장 2000곳의 9월 임금을 조사해 집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연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주)아이엘리시아	취향에따라 선택가능	마취(주)아이엘리시아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Steak 이용요금 별도인원

1. 프크 Steak 8,000원
2. 워킹비 Steak 9,000원
3. 비프 Steak 10,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ungol ₩10,800

베리언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폴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olo polo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영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